

No.2017011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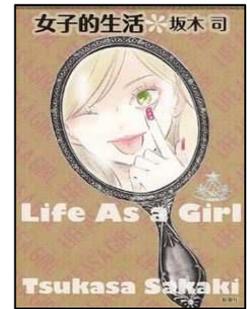
제목: '여자'다운 생활

저자: 사카키 쓰카사

페이지수: 286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8월 22일



<내용소개>

'여자로서의 생활'을 만끽하는 트랜스젠더 주인공의 이야기를 경쾌하게 그려낸 작품

성소수자인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동성애자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적·법적으로 심한 차별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인도 남들과 다른 자신의 성향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 자기자신의 벽을 극복한다 해도 가족과 친구들이 환영해줄 지는 미지수다.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 '미키'는 남자의 신체를 갖고 태어났지만 마음은 레즈비언이다. 즉, 생물학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남성이지만 인격적으로는 여자이며 여자와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이다. 여장을 하고 다니는 미키는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커밍아웃을 한다. 존재를 부정하거나 거절하는 대신 있는 '그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축복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멋을 내고 꾸미기를 좋아하는 미키는 도쿄에서 의류 회사에 근무하며 자기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간다. 꿈꿔왔던 '여자'로서의 생활을 만끽하던 중, 하우스메이트로서 같이 살던 친구 토모가 애인이 생겨 떠나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고등학교 동급생 고토가 갑자기 미키를 찾아온다. 불행한 사건에 휘말려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왔게 생긴 고토는 절박한 마음으로 미키를 찾아오는데, 자기 바로 눈 앞에 서 있는 여장한 미키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절주절 사연을 털어놓는다. 미키는 고토에게 자기에 대해 설명하고, 이 둘은 하우스메이트로 동거하게 된다.

이 소설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점을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다룬다. 성추행과 성희롱, 타인의 취향을 약점 삼아 우위를 점하려는 사람들, 가정 내 정신적 학대,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사례가 등장한다. 이에 입을 다물거나 굴복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는 미키를, 독자들도 자연스럽게 응원하게 된다.

또한 여자들은 폭풍 공감할 만한 에피소드들이 적절히 엮여 있다. 주인공이 패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용어들도 나오고, 미팅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신조어 '구구레카스(직접 찾

아보지 않고 남에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구글 검색이라도 해 보라고 하는 말)과 '게스(비열함, 불륜함)'같은 말은 요즘 세대의 이야기라는 느낌을 한층 살려준다. 《화과자의 안》으로 유명한 작가 사사키 쓰카사의 이색적이지만 공감 가능한, 경쾌한 청춘 소설이다.

<저자소개>

사카키 쓰카사

1969 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2002 년 《청공의 알》로 데뷔했다. 《어린 양의 보금자리》, 《동물원의 새》로 이어지는 '히키코모리 탐정' 시리즈를 통해 인기 미스터리 작가 대열에 올랐다. 그 외에 《화과자의 안》, 《끊어지지 않는 실》, 《밤을 달리는 스파이들》 등의 작품이 있다.

No.2017011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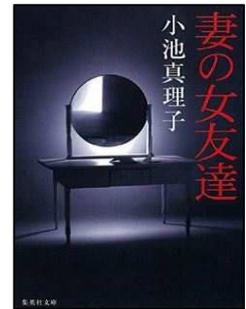
제목: 아내의 여자 친구

저자: 코이케 마리코

페이지수: 280

장르: 소설

출간일: 1995년 04월 13일



<내용소개>

평범한 사람들에게 숨어있던 악의가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한 서스펜스 연작 소설집

이 책은 100편이 넘는 장편 및 중·단편 소설을 발표하고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하며 일본 문학계에서 상당한 입지를 보유한 소설가 코이케 마리코의 초기 단편집이다. 그 중 표제작 <아내의 여자 친구>는 일본추리작가협회상 수상작으로서 그녀가 작가로 데뷔한 시작점이기도 하다.

이 타이틀에 실린 6편의 짧은 소설들이 조성하는 긴장감과 스릴러, 찝찝함 등은 모두 '평범함'에서 시작된다.

<보살 같은 여자>에는 부유한 병원장과 젊은 새 아내, 전처의 장성한 두 딸, 병원장의 여동생인 중년의 독신녀가 등장한다. 여자들은 그의 난폭한 성격과 행동에 질색하면서도 돈 때문에 거역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어느 날, 병원장이 홀로 불에 타 죽은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추락>은 젊은 작가지망생 미야코가 추락사로 숨지며 시작된다. 그녀와 불륜관계였던 가키누마는 혹시나 자기가 저지른 뺑소니에 대해 유서를 남기지는 않았는지 불안해하며 미야코의 언니에게 접근한다.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의 주인공은 남편 및 남동생과 같이 사는 여자 미사코다. 남동생이 루미코라는 여자와 결혼하며 그녀가 키우던 고양이와 친정어머니까지 모두 한 집에 살게 되는데, 루미코 모녀는 각자 남편과 사별한 경험이 있다. 이후 키우던 수컷 개가 죽고 갓난아이인 미사코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며, 남동생도 건강이 나빠진다.

<아내의 여자 친구>는 야망도 욕심도 없는 공무원 하지메의 가족 앞에,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 미유키가 나타나며 균열이 생기는 이야기다. 아내가 미유키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점차 이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게 되고, 불안과 의심이 커진 하지메는 급기야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잘못된 사망 장소>는 의원 입후보를 앞둔 인기 캐스터 온다의 불륜녀 마미코가 자기 집에서 그를 살해하며 시작되는 사건이다. 마미코는 자수를 하려고 하지만 온다의 아내가 이를 말린다.

마지막 <다 끝났다-종막>에서, 주연 여배우 마이의 애인이 되며 주역을 떠난 나츠히코는 관계를 정리하려다 그녀를 죽인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한 찰나,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 버린다.

누구나 선의와 악의를 동시에 품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어떤 식으로 분출될지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불안정함과 불확신성이 섬뜩한 공포 요소로 발현된다. 또한 수록된 글들의 중심에는 여성 캐릭터가 있는데, 평온을 가장한 무력에 순응하는 유약한 캐릭터로 보이지만 어느 한 순간 강렬히 반격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모두 다른 소재를 짜임새 있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내, 끝까지 재미 있게 읽을 수 있다.

<목차소개>

보살 같은 여자 / 추락 /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 / 아내의 여자 친구 / 잘못된 사망 장소 / 다 끝났다(c'est fini) - 종막

<저자소개>

코이케 마리코

1952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세이케이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1989년 <아내의 여자 친구>로 제 42회 일본추리작가협회상(단편부문)을 수상하며 데뷔하였다. 1996년 《사랑》으로 제 114회 나오키 상, 2006년 《무지개 저편》으로 제 19회 시바타 렌자부로 상을 받았다. 2012년 《무화과의 숲》으로 예술선장문부과학대신상, 2013년 《침묵하는 사람》으로 제 47회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을 받았다.

No.20170111-003

제목: 상상하던 미래가 현실이 되는 GOLD VISION

저자: 히사노 카즈요시

페이지수: 220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2월 22일



<내용소개>

상식의 뒷에서 벗어나 “올바른 목표설정”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손에 넣는 골드 비전!

누구나 미래의 자기 모습을 상상해 본다. 원하는 삶의 형식과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지금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여도, 한 사람은 10년 후 업계에서 명성을 얻어 아주 바쁘게 지내고 다른 한 사람은 소도시에서 생계를 유지할 돈벌이를 하며 가족과 소박하게 지내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독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진다. 국제적인 비즈니스맨을 목표로 학생시절에도 직장인이 된 후에도 성실하게 업무와 학업을 해 온 A씨는 언제나 자기 실력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해내려고 한다. 눈 앞의 일에 대해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는 방식으로 매일 의욕적으로 살고 있다. 이에 반해 B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봐 왔고 입 밖으로 내는 소리라고는 항상 현실감이 떨어지는 엉뚱한 말뿐이다. 비현실적이라며 허구한 날 주위의 면박을 듣는다. A씨와 B씨 중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 자기 삶에 만족할 사람은 누구일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잘못된 목표설정'의 유무다.

제목이자 핵심 키워드인 “골드 비전(GOLD VISION)”은 저자가 직접 개발한 목표 실현 방법으로, 인지과학에 기반한 코칭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당연히 여겨왔던 상식은 계속 의심하고 뒤집어보길 요구하며 자기 인생의 진짜 목표(골)을 발견하고 명확히 한 다음, 실제로 달성하도록 지원해 준다. 바라던 것이 실현된 미래,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갖기 위해서는 미래를 보는 힘, 자신을 믿는 힘, 사람을 끌어당기고 움직이는 힘이 필요하다.

본문은 총 6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다. 1장은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내적 작용을 이야기한다. '~하고 싶다'고 생각할수록 가능성이 줄어드는 이유,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성향, 인간의 목표와 동물의 목표의 차이 등을 소개한다. 2장은 골드 비전이 현재 상황의 벽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목표 설정의 축으로 작용하는 3가지 요소와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4장은 미래를 현실처럼 인식함으로써 미래를 보는 것의 힘, 5장은 새로운 뇌 회로를 만들고 자기를 믿는 힘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6장은 특정 공간을 공유하는 일의 중요성부터 시작해, 주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이야기한다. 사람 만나기 능력, 사람과 이어지는 능력, 신뢰와 추천을 받는 능력, 전달 능력, 생각을 붙여넣는 능력, 키워주는 능력이 해당된다.

지금 자기 삶이 잘못된 목표를 향해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자. 항목 당 내용은 짧은 편이며 각종 도표들을 적절하게 이용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목차소개>

서장: 골드비전은 무엇일까?

제 1장: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

제 2장: 골드비전으로 현재 상황을 넘어 빠져나간다

제 3장: 좋은 목표, 나쁜 목표

제 4장: '미래의 기억'이 목표가 된다 -첫 번째 힘, 미래를 보는 능력

제 5장: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든다 -두 번째 힘, 자신을 믿는 능력

제 6장: 골드비전을 극적으로 끌어당기다 -세 번째 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

종장: 골드비전으로 인생을 바꾼다

<저자소개>

히사노 카즈요시

프로코치. '코노웨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일반사단법인 Cognitive Coaching 협회 부대표를 맡고 있다. 1974년 요코하마 시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학 경제학부 졸업 후에 츠크바대학에서 MBA를 취득했다(International Business 전공). 유소년기를 샌프란시스코, 중학생 및 고교생 시절을 런던에서 보냈으며 대학졸업 후에 2개 회사를 창업해 병행 경영했다. 인재 스카우트 기업, 복수의 외국계 자본 계열 대기업에서 다양한 매니지먼트 포지션, ProFuture를 거쳐 2015년 12월에 코칭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종합지원기업, '코노웨이 주식회사'를 세웠다.

미국 전역에서 다수의 기업과 조직에 도입된 '루 타이스'의 수법과 도마베치 히데토 씨에게 배운 인지과학적 지식을 융합하여 독자적인 목표실현 메소드 <골드 비전 메소드>를 개발하였다.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사장, 매니저, 비즈니스 현장을 뛰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1000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코칭을 했다. 개개인의 강점을 살리며 조직에 높은 퍼포먼스를 가져오는 문화를 양성 및 정착시키는 것이 특기다. 템플대학에서 인지심리학(코칭)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No.20170111-004

제목: 일이 빠른 사람은 그림으로 생각한다

저자: 오쿠무라 류이치

페이지수: 208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2월 09일



<내용소개>

차트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 소개서

주어진 근무 시간 내에 맡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고 싶은 것은 모든 비즈니스맨의 희망사항이다. 그리고 언제나 한 발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상사나 동료처럼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 관점을 바꾸어 사고방식과 및 업무패턴에 변화를 주면 일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인생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인간의 뇌는 정반대인 두 가지 사고 활동을 한다. '발산사고'는 자유롭고 참신한 발상을 끌어내기 쉬운 상태다. 상상력과 직감을 한껏 가동해 맹점을 발견하고 창의력을 풍성하게 한다. 반면 '수렴사고'는 범위를 좁히며 정교하고 치밀하게 논리를 쌓아가는 상태다. 비평을 하며 실수를 고쳐나갈 수 있다. 발산사고와 수렴사고를 능숙하게 오가며 균형을 잡아야, 눈길을 사로잡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도해 사고 기술을 가르쳐 온 컨설턴트로, 이 타이틀에서 발산사고와 수렴사고를 아우르는 '도해 사고'를 권한다. 본인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과 업무 내용을 차트와 그래프를 이용해 시각화하는 것이다.

1단계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문제를 명확히 하는 단계다. 문제 개선 및 해결, 대책과 아이디어 제시, 교섭 성공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 준비를 알려준다. 2단계에서는 앞서 찾아낸 내용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며 관계를 정립하고 숨겨져 있던 문제를 표면으로 올린다. 3단계는 실행단계다. 다음 5가지 유형에 따라 각각 적절한 도표를 활용한다.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항목으로 분류 및 정리해주는 트리 차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인과관계를 정리하는 플로우 차트, 대책을 고민하거나 아이디어를 내야 할 때에는 상이한 두 개의 요소를 축으로 삼아 문제점을 정리하는 매트릭스 표, 대립 의견과의 합의점을 모색하거나 교섭 시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고자 할 때에는 다수의 중복 영역을 표시해주는 벤 다이어그램, 최선책을 찾아내고 선택하고 싶을 때에는 흩어져 있는 후보들을 시각화하는 점 그래프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저자는 책의 초반부터 후반까지 3-step에 맞춰 몇 가지 케이스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림'을 만드는 일은 언어 텍스트를 순간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상상력을 살릴 부분을 남겨두며 복잡한 정보들의 관계를 깨닫고 배치하는 과정이다. 임시방편 스킬이 아닌, 그림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강화해줄 책이다.

<목차소개>

(STEP 0) 순식간에 문제 해결! 도해 사고 3-Step

(STEP 1) '구체적 예'를 찾는다 -원인과 사례를 써 본다-

(STEP 2) '비교'한다 -'차이'와 '공통점'에서 진짜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STEP 3) '그림'으로 만든다 -그림에서 답이 떠오른다-

<저자소개>

오쿠무라 류이치

미츠비시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 1급 건축사.

1968년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났으며, 1994년 와세다대학 대학원 이공학연구과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미츠비시종합연구소에 입사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공생사회정책,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컨설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생각 정리 기술' 연수를 실시해 왔다. 2014년부터 사이버대학 객원 준교수, <우라야스 시 시민 참가 추진 회의> 회장, <고마에 시 남녀 공동 참여 추진 계획 개정 위원회>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 <고마에 시 시민 참가와 시민협동에 관한 심의회>회장을 맡고 있다. 《5만 가지 생각 5가지 정리법》, 《도해 인구감소경제를 빠르게 이해하다》, 《생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기술 31》, 《생각을 정리하고 전하는 도해 기술》등 그림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스킬에 관한 서적을 다수 집필하였다.

No.20170111-005

제목: SYUNKON의 일기 -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저자: 야마모토 유리

페이지수: 323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6년 11월 24일



<내용소개>

일본의 No.1 인기 요리 블로거가 선보이는 포복절도 에세이

저자 야마모토 유리는 월간 800만의 방문자 수를 자랑하는 일본의 인기 요리 블로거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양념을 활용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 범상치 않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거의 매일 업로드하는 블로그 '킵킵 웃으며 보는 카페 밥 <SYUNKON>'은 네티즌의 호평 속에 금세 인기를 얻었다. 지금까지 발행한 4권의 요리책 시리즈와 에세이는 누계 판매 430만 부에 달한다. 앞서 발간되었던 에세이 <syunkon 카페 잡다한 기록 - 크림스튜는 밥에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등>에서 한층 업그레이드한 이번 에세이집도 터져 나오는 웃음으로 가득하다.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이 끝나는 부분에 블로그에서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요리 레시피와 칼럼이 수록되어 있다. 1장 '맛있는 이야기' 편에는 오므라이스에 대한 논의, 먹을 것을 입에 계속 넣게 되는 것, 식빵을 싫어하는 친구, 스타벅스에 다채로운 메뉴들이 가득함에도 지극히 평범한 아메리카노는 주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상, 미스터도넛과 로얄호스트에서 나눈 대화 등 저자가 다양한 음식이나 레스토랑 혹은 카페에서 느낀 점들을 유쾌하게 공개한다.

2장에서는 좀 더 범위를 확장해, 여자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다림질의 비법, 패션용어를 모를 때, 소녀만화의 정석, 화장하는 것의 귀찮음 등의 에피소드들이 나온다.

3장은 정신 없는 일상의 한 부분을 떼어온 것 같다. 머리 속에서 앞뒤 논리를 맞추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전화 통화의 어려움,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4장 '일하기' 편에서는 이자카야의 아르바이트, 원고 체크하기, 영업직 시절의 일기, 처음 울었던 날에 대해 회상한다.

5장에는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었을 때 했던 생각, 그런 사람들에게 건네고자 하는 말이 담겨 있다. 나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해지거나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고독과 불안을 마주하는 법, 없어지지 않는 스트레스, 인간의 입장과 역할, 스스로 희망을 만드는 행위 등 앞선 내용에 비해 진중한 분위기다.

마지막 6장은 어릴 적 추억 중심이다. 중고등학교의 미술 선생님, 마술사를 동경하던 시절, 처음 받은 용돈 등 소소하지만 공감할 만한 과거의 한 조각을 풀어놓는다.

저자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 동안만이라도 몸에 잔뜩 들어간 힘을 빼고,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는 여유를 되찾고, 뭔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길 바란다. 소박함과 진중함, 경쾌함과 재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책이다.

<목차소개>

1장: 맛있는 이야기

(오므라이스에 대한 논의 / 음식을 계속 입에 넣는 스위치에 대해 / 오코노미야키를 흰 밥에 반찬 삼아 먹을까 말까 등)

2장: 여자니까

(다림질의 비법 / 패션용어를 모른다 / 화장의 귀찮음 등)

3장: 정신이 없음

(머리 속에서 앞뒤를 맞추는 행위 / 아침의 문장, 밤의 문장 / 수수하고 고독한 기절 등)

4장: 일하는 것

(이자카야 아르바이트 / 어느 손님 / 금요일의 원고 체크 등)

5장: 틀림없이 괜찮을 거야

(자기만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다 / 스트레스등)

6장: 추억이 뭉게뭉게

(의미불명 여행 / 무언가를 숨겼을 때의 추억 / 마술사에 대한 동경 등)

<저자소개>

야마모토 유리

요리 칼럼니스트. 1986년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결혼 전에는 광고대행사에서 영업 일을 하였으며 현재는 두 아이의 엄마다. 저서인 레시피 북 《한 그릇 카페 밥》은 현재 시리즈 6권 누계 430만 부를 돌파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015년에는 첫 에세이를 펴냈으며 번덕스럽게 갱신하는 블로그 〈킵킵 웃으며 보는 카페 밥 《syunkon》〉은 레시피는 물론 자신과 가족의 일상을 업데이트 하며 월간 800만이 넘는 방문자 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http://ameblo.jp/syunkon/>

No.20170111-006

제목: 돈을 늘리는 법, 지키는 법

저자: 오에 히데키

페이지수: 256

장르: 경제

출간일: 2016년 12월 18일



<내용소개>

낭비를 줄임으로써 재산을 늘리고 지키는 비결을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알아본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 하에 이론을 전개한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의 대소를 따라 움직이며, 값이 싸면 사고 비싸면 사지 않는다는 행동 예상도 인간이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인간은 정말 항상 합리적인가? 멀리서 사례를 찾을 필요가 없다. 어이없는 충동구매를 해놓고 후회한 경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지인에게 추천 받은 금융파생상품이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험, 저렴하다는 말에 혹해서 구입한 물건을 막상 사용해보니 그 값마저도 못해 속상했던 경험은 흔하다. 심지어 반성해놓고 똑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합리성이나 냉철한 이성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

이 책은 이런 점에 착안해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비합리적이고 쓸모 없는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행동경제학이란 수학적 계산 위주로 돌아가는 기존 경제학과 달리, 심리학·사회학·생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인간의 경제 행위를 설명하는 분야다. 당시에는 이해득실을 따져 객관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확신하지만, 되돌아보면 감정(勘定, 계산)보다 감정(感情)을 따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저자는 본문에서 돈과 인간의 감정 사이에 도사리고 있는 오해와 착각을 파헤친다.

1장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다. 같은 금액에 대해 개인마다 느끼는 가치는 모두 다르다. 판단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전망이론'과 작은 위험을 피해 큰 위험의 늪으로 빠져드는 '매몰비용'의 덫을 설명한다. 2장은 통제하기 어려운 '직관'과 '충동'에 대해 생각해본다. 과거 경험과 절체절명의 순간 나오는 촉을 과신하는 것은 손해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왜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것을 알면서도 휘둘리게 되는지 이론과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3장은 돈을 쓰는 행위가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이다. 고액의 물건을 살 때 느낀 쾌락은 더욱 빠르게 큰 폭으로 사라진다고 한다. 문제행동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실험 결과, 노후불안을 좋은 미끼로 삼는 금융기관의 상술에 관한 내용이 흥미롭다. 마지막 4장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다. '세일 대상 외 상품', '희소성 원리' 등 필요 없는 물건에 지갑을 열게 하는 마수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소개한다.

실수를 방지하려면 우선 자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내부 구조를 파악해 패인을 찾아야 한다. 자산운용과 재산 축적의 노하우를 익히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 책은 돈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 함정을 피하게 해줄 브레이크가 될 것이다.

<목차소개>

Lesson1 사람은 <손실 피하기>를 우선시한다 - 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할까

Lesson2 누구든 <마음의 착각>으로 사 버린다 - 직관과 충동을 떨쳐낼 수 있을까

Lesson3 행복해지는 사용 방법을 선택한다 -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을 늘리려면

Lesson4 불합리한 선택을 하지 않는 체질이 된다 - 정말 원하는 것만을 사려면

<저자소개>

오에 히데키

경제 칼럼니스트. '오피스 리베르타스' 대표.

노무라증권에서 38년 간 근무하고 이후 25년은 개인 자산운용업무에 종사, 확정거출연금 투자교육 업무를 담당했다. 40만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와 돈'에 관한 수업을 개최해 왔다. 독립 후에는 샐러리맨이 퇴직 후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이념 하에 경제적 지식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연간 100회를 넘는 강연과 TV출연, 잡지와 신문 집필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특히 세미나는 수많은 팬의 지지를 얻고 있다. CFP(R), 일본 증권애널리스트협회 검정회원.

주요 저서로는 《현명한 투자자의 심리학》, 《모르면 손해 본다, 경제와 돈의 기초 1학년》, 《처음 접하는 확정거출연금투자》 등이 있다.

No.20170111-007

제목: 우리 집 마초 고양이: 두 마리의 고양이를 모시는 집사의 그림 일기

저자: 마키 리에코

페이지수: 131

장르: 코믹 에세이

출간일: 2016년 12월 02



<내용소개>

만화가 겸 일러스트레이터가 공개하는 고양이 집사 라이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흔히 '집사'라고 부른다. 주인에게 수직관계로 복종하는 편인 개와 달리, 고양이는 주인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거나 아래로 보는 것 같이 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주인은 밥을 챙기고 배설물을 처리해주고 각종 도구들을 마련해줘야 한다. 주인 스스로 집사라고 말하게 만드는 부분이 고양이의 매력이기도 하다. 블로그에 4컷 육아만화를 연재하며 수많은 엄마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았던 마키 리에코가, 이번에는 두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돌아왔다.

고양이는 새침하게 기척도 없이 살금살금 다닌다는 고정관념을 무참히 깨버리는 '카츠오'. 체중 6kg, 무서울 것 없이 온 집안에 자신의 존재를 격렬하게 드러내며 가족들을 아랫사람처럼 부리는 궁극의 마초 고양이이다. 이 책은 의외의 면모를 지닌 수컷 고양이 카츠오, 세탁조 안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암컷 고양이 '비'가 작가 부부와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유쾌하게 그려낸 만화 에세이다. 두 고양이는 때로는 주인을 매우 당황시키고 난처하게 만들지만 그만큼의 기쁨과 즐거움도 안겨준다. 소소한 웃음이 가득한 에피소드들이 애묘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본문이미지>

No.20170111-008

제목: 호박은 소금을 넣어 찐다: 요리와 음식을 사랑하는 화가의 맛 에세이

저자: 마키노 이사오

페이지수: 213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6년 12월 15일



<내용소개>

요리를 좋아하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화가의 맛있는 음식 탐방기

사람이 음식을 먹는 행위는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미각과 후각으로 감지하는 맛, 그 자리를 함께하는 일행이나 환경이 빚어내는 분위기가 어우러져 추억으로 남는다. 때로는 타인에게 격려와 용기를 대신 전해주기도 한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음식을 어른이 되어 직접 해보면 그 때 그 맛을 내기가 어렵다. 레시피가 똑같아도 결국 다른 음식이 되어버린다. 만드는 사람의 감정이 다르고, 손맛이 다르고, 먹는 사람의 감정도 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음식은 생각보다 예민한 존재다.

이 책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 다니고 직접 요리하는 것을 즐기는 화가, 마키노 이사오가 '맛'에 관해 쓴 에세이집이다. 손수 요리를 한지 10년쯤 되었다는 그는 스스로를 낮이나 밤이나 먹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먹보에 술을 사랑하는 애주가로 소개한다. 좋아하는 음식들에 관련된 과거 에피소드, 조리 및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간결한 문장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달착지근한 호박 간장조림을 싫어해서 호박을 피하던 저자는, 어느 날 채소가게 아주머니의 추천을 듣고 소금을 뿌려 찐 본다. 그렇게 했더니 소금의 짠 맛은 없고 호박 자체의 단 맛만 한층 살아나 호박을 좋아하게 된다. 이외에도 캠프장의 조리대 같은 낯선 공간에서 간단하면서도 든든하게 해먹을 수 있는 방갈로 스프, 페루 여행의 기억을 되살리며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세비체, 기차에 어울리는 삶은 달걀을 비롯해 각종 나베 요리와 우동, 오뎅, 중화 소바, 스키야키, 규동 같은 요리가 등장한다.

맛없는 참치를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다. 우선 한 두 조각 잘라 먹어본 다음 안 되겠다 싶으면, 술과 소금을 뿌려 숯불에 꼬치로 구운 다음 간장과 와사비를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한다. 또는 참기름을 두른 작은 냄비에 참치를 나란히 깔고 그 위에 잘게 다진 중국식 발효 콩 떡우구, 소금과 후추를 뿌린 뒤 술을 쳐서 찜을 해도 좋다고 한다.

돼지고기와 화이트 와인의 조합, 닭고기 맥주조림과 레드 와인, 이외에 여러 가지 야채 말리는 방법, 숯불 제대로 쓰는 법, 화이트 와인의 조합, 닭고기 맥주조림과 레드 와인 등도 소개하고 있다.

요리는 조합하는 재료, 조리 순서, 조리 도구, 곁들여내는 음료나 술에 따라 맛이 변한다. 저자가 간단하게 글로 알려준 레시피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맛이 확 달라지는 비결들이 녹아있다. 익숙하지만 조금 색다른 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읽어보기를 바란다. 즐거운 한 끼 식사를 같이 한 느낌이 들 것이다

<목차소개>

호박 소금 조림 / 방갈로 스프 / 키라스마메시 / 세비체 / 미국의 도시락통 / 맛있는 참치를 맛있게 먹는 방법 / 따뜻한 콘비프 샌드위치 등

<저자소개>

마키노 이사오

화가. 1964년 기타큐슈 시에서 태어났으며, 타마미술대학 졸업 후에 광고제작회사 'SUN-AD'에 입사하였다. 1992년 퇴사하여 도내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며 활동하기 시작했다. 미술동인지 <4월과 10월> 동인, 기타큐슈 시 정보지 <쿠모노우에>, 히다산업광고홍보지 <히다>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오늘 밤도 술집》(공저), 《나는 태양을 마신다》 등이 있다.

No.20170111-009

제목: 미술관의 비밀

저자: 쿠사나기 나츠코(감수)

페이지수: 63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12월 21일



<내용소개>

‘미술관’을 배우고 미술관이라는 공간과 친해질 수 있는 설명서입니다.

벽에 나란히 걸린 작품들을 조용히 다니면서 관람해야 하는 엄숙하고 차분한 공간. 미술관을 이렇게 따분한 곳으로 정의하면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술관은 어떤 곳인지 재미있게 배우면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은 미술관장으로 근무해 온 저자가, 아이들에게 미술관의 이모저모를 설명하는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정보 코너, 강당, 수집 저장 창고, 아트 갤러리, 뮤지엄 숍, 아틀리에와 전시실 등 다양한 장소를 둘러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장은 미술관에서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의 분류, 감상 팁, 감상 후 해야 할 일 등을 알려줍니다. 2장은 전시회 개최를 비롯해 미술 관련 교육 및 지식 보급 활동, 조사 및 연구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미술관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작품 수집하는 프로세스, 변형 및 파손 방지책, 전시 방법과 레이아웃 기술도 소개합니다. 3장에서는 미술관의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봅니다.

고요하고 정적일 것 같은 미술관의 뒤에는 훌륭한 작품을 보다 좋은 상태로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술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No.2017011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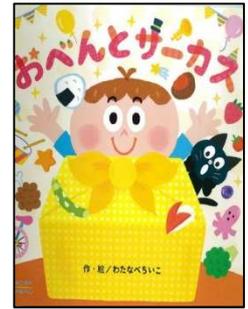
제목: 도시락 서커스

저자: 와타나베 치코

페이지수: 28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09월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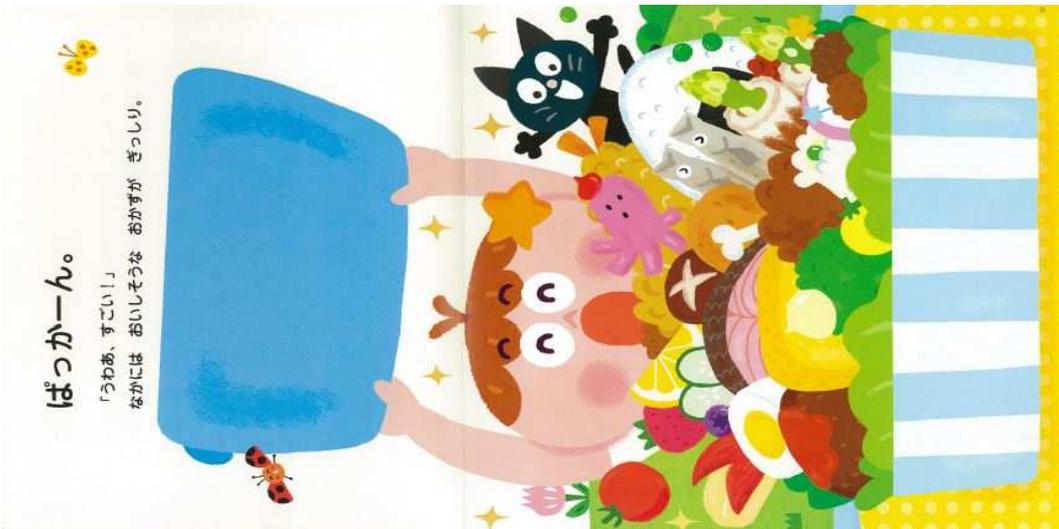
즐거운 소풍날, 엄마가 준비해 준 도시락 안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풍 날 아침, 설레는 마음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소년 '다이'는 엄마가 만들어 식탁 위에 올려 둔 도시락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시끌벅적 신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상해서 열어보니, 화려한 도시락 서커스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다이는 곧 서커스가 시작되려는 사회자 토마토의 소개에 따라 쇼를 구경합니다. 먼저 주먹밥 패밀리가 우르르 한 발 자전거를 타고 나와 아슬아슬하지만 넘어지지 않게 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은 문어모양 비엔나 소시지와 닭튀김의 화려한 마술쇼 타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도시락 서커스의 최고 스타, 브로콜리 공주의 차례입니다. 별 모양 당근과 공중 그네를 타고 서로를 스치다가, 브로콜리가 당근 쪽으로 휙 건너가는 데 성공합니다.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는 다이의 귀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더 있다가는 늦을 지 모릅니다. 다이는 소풍 장소에 무사히 도착하여 친구들과 도시락을 꺼내놓고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도시락 안에 든 음식들이 몰래 서커스를 벌이며 놀고 있다는, 귀여운 상상력이 빛나는 책입니다. 둥글둥글하고 알록달록한 그림체가 스토리와 잘 어울려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와타나베 치코

일러스트레이터. 사이타마 현에서 태어났으며, 오스트레일리아 Martin College Sydney (그래픽 디자인 과)를 졸업하였다.